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80호 [루계 제23032호] 주제99 (2010)년 3월 21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세기를

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각지 경공업공장
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
들이 인민생활대고조의 해인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획
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
펴우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세계에서 몸소 찾아주시고 내세
위주신 현지지도단위들이 년초
부터 매월 인민경제계획을 넘
쳐 수행해 생산에서 혁신을 이
룩하고 있으며 많은 경공업공
장들에서 인민소비품을 더 많
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
쟁을 침있게 벌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
기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침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경공업부문 일군들
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부문에서 일하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
직하고 경공업혁명을 협저히
수행하여 나라이 경공업발전
에서 결정적한 활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
로 빛내이기 위해 총공세의 불
길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경공업부
문의 일군들이 높은 시대적책
임감을 갖고 경제조직사업을
祲을 없이 짜고들고 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들끓
는 생산현장들에서 나가 인민소
비품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
상화되도록 경제작전을 주도세
밀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생
자대중을 증산투쟁으로 불러일
으키는 정치사업을 침있게 벌
리는 한편 기술자, 기능공들과
기술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

각지 경공업공장들에서

의 현장협의회를 자주 조직하
며 생산지휘를 능동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진취적
이며 혁신적인 일본새에 의해
여서 생산현장들마다에서는 증산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평양방직공장, 신의주
방직공장, 산주직물공장을 비
롯한 방직공업부문의 공장들에
서 방직사와 천 생산을 다그쳐
1월과 2월에 이어 3월에도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선교편직
공장, 강계편직공장의 일군들
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불려는
애국의 열정과 창조정신을 높
이 발휘하여 인민들속에서 수
요가 높은 편직옷을 많이 생산
하고 있다. 특히 선교편직공장
에서 올해에 들어와 일별, 월별로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인민들속에서
수요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의주신탄공장, 원산구두공
장을 비롯한 신발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신발의
질적구성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질좋은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각지 식
료공장들에서도 올해에 들어와
매월 당파류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
품공장, 평양일용품공장, 함흥
예군군수지일용품공장들에서
는 불꽃튀는 생산현장을 펼쳐
세수비누, 치약, 치과제품을 비
롯한 1차소비품생산을 늘여나가
고 있다. 이외에도 각지 지방의
기업과 업체에서 투쟁을 침있게
벌리고 있다. 이들은 생산
자대중을 증산투쟁으로 불러일
으키는 정치사업을 침있게 벌
리는 한편 기술자, 기능공들과
기술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신발공업부문에서도 생산공
정의 기술개선과 현대화사업을
늘기 위해 각지 경공업공
장들에서 혁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각지 경공업공
장들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
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
락하게 해주시려고 불철주야의
경력적인 활동을 벌리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만
들어 보통강신발공장을 비롯
한 여러 대학들과 과학
연구기관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보내주
어 신발생산에서 혁신이 일어
나게 하고 있다. 신발공업부문
의 일군들은 지난해에 신의주
신발공장에 창생산공정을 꾸려
놓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밀
고나가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
해 당당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един해 신발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벌리고 있다. 평양
신발공장에서는 젊은 기간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CNC화를
높은 경제에 기초하여 보통강
신발공장에도 현대적인 창생산
공정을 꾸려기 위한 사업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항일의 김대장 업적을 노래한다

창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보금된 시가작품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문화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건설업무를 대표하여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하여 나갈수 있다.』

백두산 출기가 면면히 뻗어내려 삼천리지맥을 이룬 내 나라에 백두산은 조종의 산으로, 혁명의 성산으로 거연히 솟아 빛나고있다.

민족의 정기가 비단 푸른 천지를 품어안고 웅진한 뼈부리를 펼치고 있는 백두산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항일무장투쟁사를 간직하고있었으므로 하여 그 기상 그럴듯 장엄하고 기백 넘치는 것이다.

백두산 출기는 면면히 뻗어내려는 강줄기와도 같이 망고의 뺨찌 산김대장을 칭송한 혁명적시가작품들은 세월의 언덕을 넘어 끌없이 울려펴고있다.

지난 시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혁명적인 시가작품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당보를 통하여 소개된데 이어 이번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동북지방의 항일의 전구들에서 수집된 시가작품들이 또다시 전해져 우리 군대와 인민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이번에 알려지게 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시가작품들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출기차게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무장투쟁영적을 적극 칭송하는 작품들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중의 하나가 『백두명산』이다.

하늘을 품고 치솟은 명산
굉장하고 웅장한 사자 백두산이다

만천산을 아래두고 솟은

기상은 억만병을 지휘하는 장군님 같네

자고잔 흔들을 이마에 이고

시베리아(씨비리) 맹렬한 풍

불어치여도

끄덕없이 거연하게 솟아있으니

왜놈들 호령하는 장군님 같네

푸르고 거센 동해물결 셧어도

그 정기 변할소나 백두산이라

억만년 훌러고도 불멸의 기개

승리로 이끄시는 장군님 같네

일제의 야만적인 폭압속에 신음

하는 거제의 운명을 구원하는것을

조선혁명가들의 신성한 임무로 간

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

을 중심으로 국내깊이 무장투쟁을

조직전개 하심으로써 인민들의 가슴

마다에는 해방의 사광이 비쳐들게 되었다.

하여 우리 인민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담력과 배짱은 그대로 백두산이라고 격찬하면서 위인 칭송의 시가작품들을 널리 창작보급하였다.

백두산의 정기를 암시하고 왜놈들을 삼매베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흡모심을 암은 우리 인민은 장군님을 백두산호랑이로 높이 칭송하였다.

인민의 그 마음은 백두산지구를 주름잡으며 명활한 군사정치 활동을 벌리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백두성을 오타락하며 놀랄발리며 만 죽여내는 조선국의 항왕장군, 천하무적 호랑장군으로 노래한 『호랑장군』에도 드겁게 비껴있다.

백두산일대에서 울린 멍석의 총

성은 그대로 백두의 산발마다에 승리의 총성으로 메아리쳐갔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승전소식은 노래 되어 인민들의 가슴속에 울려퍼졌다.

에 혜 승리로구나 승리

산도 물도 성글벙글 승리로구나

백두산호랑이 따옴 출격에

일본군 대칼통 풀썩 풀썩

썩은 호박되어 나뒹굴었다네

얼싸 좋네 승리의 소식이로구나

에 혜 승리로구나 승리

산새 틀새 노래하는 승리로구나

백두산호랑이 따옴 출격에

발바리 꾸루리를 풀썩 풀썩

까마귀밥이 되어 나뒹굴었다네

얼싸 좋네 승리의 소식이로구나

구걸구걸 음미 할수록 일제의

삼엄 한 경계망을 뿐고 국내로 진

출한 조선인민혁명군이 보천보를

기고 구시안 간삼봉전투에서 놀

들에 무리죽음을 암기였다는 가

습후련한 소식에 절 하여 마을의

남녀로소 펼쳐나 두동실 어제총을

주는 백두산지구 인민들의 모습이

금시라도 보이는것만 같은 『승리

의 소식』

나래동чин듯 펴지는 김장군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걸세의 위인을 흡모하는 인민의 마

음은 더욱더 달아올랐다.

당시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파릇파릇 새싹은 봄비 오기만 기다

리고 암암하는 우리는 장군님 오기

만 기다린다고 웨폭발과 부이데

『위안군』은 살인강탈 일삼는데

김장군님부대는 백성을 도란에서

구해준다고 페찬한 『노래가락』에

는 둑에 번쩍, 서에 번쩍 일제의 미리우에 불벼락을 들씌우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담겨져 있으며 혁명과 고약을 같이 하려는 굳은 의지가 백두고고 있다.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

일속』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 인민은 유격대만이 나라를 해우고 떠나는 일본군 대대로 믿고 떠르고 백두산으로 몇십만명의 아낌없는 원호를 보내왔다.

인민의 전정은 『장군님께 보내

가자』에 후업계 어려웠다.

사례차고 긴긴 밭에

이 농사를 이리 해서

누구에게 보내갈고

두발림에 잔소리지

백두림에 보내가자

장군님께 보내가자

야심하고 긴긴밤에

이 베를랑 이리 짜서

누구에게 보내갈고

두발림에 잔소리지

백두림에 보내가자

장군님께 보내가자

새로 알려지게 된 항일무장투쟁시

기의 혁명적인 시가작품들은 백두

산에 울려퍼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장투쟁소식에서 크나큰 힘과 용기

를 가득으로 품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만민족해방투쟁에 적극

열쳐나서려는 인민들의 의지가 고동

치고있다.

현명의 기세는 나날이 높을 때

백정의 확살도 더욱이 심하다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동무들

테로의 학살에 땀주지들 말아라

감옥에 갇힌자 총각에 살상자

물론니 동무들 그 엄마이더나

해로가 아무리 혹심하 하여도

장군님 계시여 붉은 꽃 판다네

『장군님 계시여』에서 노래하듯이

우리 인민은 일제의 색색대로 가든

리 기승을 부려도 김일성장군님만

계시면 조국해방은 반드시 온다는

신심에 넘쳐 싸워나갔다.

『이것이 살길이란다』와 같이 웨놈

들세상에서는 들에 풍년이 와도 출하

로 바치면 넘는게 없고 험길이 놓인

다 해도 우리의 은금보화 다 실어가

기마련이라고 하면서 서럽다. 애써

울금보화 차운 총각을

잡자고 호소한 작품들도 있다.

백두산에서 항일의 총성이 높아

갈수록 어버이 수령님께서 지켜주신

전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

릴 인민의 투쟁열의는 더욱 고조되

었으며 『옹강히 싸우자』와 같은

작품들도 훌륭하게 되었다.

금수강산 동반도는 우리 집이요

백의민족 삼천만은 우리 형제다

억눌림을 참아가며 신음만 말고

무쇠팔뚝 휘두르며 용감히 싸우자

장군님이 앞에서 지휘하신다

로민 휘급되어오면 단군의 묘

를 발굴할테 대한 가르침침을

주시고 이 사업을 몇은 진두에서

이끌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

지와 비법한 통찰력에 의해 드리

여 단군유적이 밝건되고 공백으로

남아있던 단군조선의 역사가 학

적인 토대우에서 바로잡하게 된다.

최근 4. 15 문학창작단에서는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대 박산마루』 『김일성상』 계편인 송상원 작(원)작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대 박산마루』는 신화적존재로

주되어온 단군을 실재 한 인

물로 밝혀주면서 반만년의 우

리 민족사를 완전무결하게 정

립하여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국애족의 불멸의 업적을 강

동깊이 펼쳐보이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민족이 위대성은 곧 우리 수령의 대성인입니다. 진정 그려 하

십시오.』

참으로 반만년의 새월을 안고

솟아오른 역사의 산마루 대박산,

이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사회주의 조선

의 시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군의 가치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남조선에서 위대한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고 빛내여 주시는 경에 하느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한심없는 흠모의 정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날로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선군지지옹호의 열기는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각계 시민 사회단체들의 선군정치선전활동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북의 선군정치』를 통해 우리 민족의 힘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 미국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민족의 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는 북의 현실을 널리 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군정치소개선전활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남조선의 남북공통선언설천현대는 인터넷 흠풍지에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선군정치로 21세기 자주화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통해 우리민족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평화와 민족단합은 결코 선군총대로 지켜지고 마련되고 있다. 지금 선군사상,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단지 학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계자주화운동의 미래에 대한 갈망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것은 선군사상, 선군정치가

새로운 시대사상, 시대정치로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썼다.

조국통일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의 영향력을 실로 막강하다. 자주통일운동의 주동력으로 되고 있는 선군정치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가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선군을 따라 반제반미斗쟁에 나서려는 기운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 민족 대 미국파의 대결전에서 승리의 결정적 달보를 마련해 주시고 온 거에 가선군의 덕을 보도록 해 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에 대한 더욱 전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민권연구소, 농민회총련맹 등의 단체들도 선군정치의 본질과 정당성, 독창성과 생활력에 대해 서술한 글들로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적력을 높이 칭송한 글들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글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통해 우리민족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평화와 민족단합은 결코 선군총대로 지켜지고 마련되고 있다. 지금 선군사상,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단지 학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계자주화운동의 미래에 대한 갈망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해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이 성취되었던 때, 지금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해 조국통일위업이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근본담보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높이 반들어갈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다. 서울의 한 역사학 교수는 토론회에서 군력은 곧 국력이라 고 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의 헌법한 선군혁명령도아래 이북의 민족군대는 정신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완비된 무적의 강군으로 되었다. 오늘 미국이 이북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바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업적을 남기고 『현지지도하고 계시는 미국에 대한 더욱 전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민권연구소, 농민회총련맹 등의 단체들도 선군정치의 본질과 정당성, 독창성과 생활력에 대해 서술한 글들로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적력을 높이 칭송한 글들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글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통해 우리민족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평화와 민족단합은 결코 선군총대로 지켜지고 마련되고 있다. 지금 선군사상,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단지 학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계자주화운동의 미래에 대한 갈망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것은 선군사상, 선군정치가

엄파 위용이 날로 높이 떨쳐지고 있는 현실은 남녘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선군령장을 짓고 민족의 백은 폐일도 있다. 민족의 백은 폐일도 있다.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에 비해 레토상으로나 인구상으로나 비교도 안되는 이북이 어떻게 되어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맞서는 강국으로 위용떨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민군 부대들과 일민경제 중요단위들로 끌어들여온 현지지도하고 계시는데 대 한 소식에 접한 남조선의 자주 학회의 한 성원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이북에 위대한 현실을 꺾어놓았다. 이북이 자주로 존엄을 높이고자 차지로 밟았을 때 참다운 주체의 나라로 그 위력을 온 세상에 높이 선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천출위인 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경녕 결출하신 그분께서 높이 추격드신 선군의 가치따라 막강한 군과 천민군민의 일심 단결로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북은 월등히 높이 굽고 있다.』

이처럼 결출하신 장군증의 장군이 신 김정일령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분의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밟아들어나가기에는 이북은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민족의 협력과 친선과 평화를 확립하는 데에 대한 확신이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민족의 협력과 친선과 평화를 확립하는 데에 대한 확신이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